

## 강화군, 민선 8기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

공약사항 114개 중 41개 완료, 이행률 59% 달성  
지시사항 238건 중 181건 추진 완료, 76% 달성



민선 8기 공약사항 보고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7일 유천호 군수 주재로 ‘민선 8기 공약 및 지시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1년간의 공약 및 지시사항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부서별 보고로 진행했다.

현재 114개 공약사항 중 완료 41건, 정상추진 63건, 장기추진 10건으로 전체 이행률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달된 군수 지시사항은 238개 중 181개의 지시사항을 완료하여 76%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공약사항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장기추진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 분야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완료된 주요 사업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전국최고 수준) ▲감염병 대응센터 설립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지원 ▲출산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추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화 주니어외교관 교류국가 확대 및 지원 강화 ▲경로당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폐 직물공장(구 동광직물)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플랫폼 조성 ▲문화재야행 활성화 등 41개 사업이다.

정상추진 중인 ▲초지대교~거침도간 해안도로 건설 ▲클린강화 확대 ▲장학기금 조성 확대 및 지원 강화 ▲외포지구 함상공원 건설 등 63개 사업은 모두 민선 8기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기추진 사업은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건설 ▲군도11호선(인화~교동) 국도 지정(국도48호선) ▲상습 정체 구간 교통 환경 개선 등 10개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의 협조·승인 등이 필요하다.

군은 중앙, 시, 외부 기관과의 공조와 협력 강화, 예산 및 부지 확보의 다각화 등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및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8기 출범 후 지난 1년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과 군정 현안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

- 최벽하 기자



# 강화군, 군민과 함께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



강화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강화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5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강화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경축식에 앞서 강화읍 견자산 현충탑 광장에서 유천호 군수,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경축식은 애국지사 유족소개, 기념사,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전 경축공연으로 개최된 강화군립

합창단의 공연과 뮤지컬 '영웅'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날 행사에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하여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박용철 인천시의원,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축사에서 유천호 군수는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애국지사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태풍예보 8일부터 긴급회의 등 철저한 대비 강화군, 태풍 '카눈' 선제적 대응, 큰 피해없어



갑룡공원 태풍대비현장 확인



동락천 태풍대비 배수현장 확인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상황 조사에서 강화군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8일 태풍예비특보 발효에 따라 긴급회의를 실시했으며, 9일 선제적으로 강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태풍예비특보 발효에 따라 군은 과거 침수지역 등 수방자재 전진 배치, 수리시설점검, 산사태·급경사지 점검,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반지하 주택 재해취약자 관리 등에 나서며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10일 유천호 군수는 태풍 상황을 점검하고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 ▲갑룡공원

▲동락천양수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주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오전 6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해제됐다. 11일 현재 농작물 도복이외에는 접수된 피해상황이 없으며, 오는 2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강화군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비상체제를 구축해 즉각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 확보 강화군,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 목표 대비 실

적 평가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 성과로 특별교부세 5천만 원도 확보했다. 그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상황 관리,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및 현황관리,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087억 원 보다 114억 원 많은 2,201억 원을 집행해 58.7%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소비·투자 부문은 목표액 730억 원 보다 327억 원 많은 1,057억 원을 집행해 144.8%의 매우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하반기에도 이 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 강화군, 장학관 2개소 추가 건립 전국 최초 4개 장학관 운영 /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연수구'에 리모델링중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연수구에 3, 4장학관을 추가 건립 중에 있다.

이번에 건립되는 3, 4장학관은 순수 군비로만 3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연면적 4,568㎡에 117실 규모)과, 인천 연수구 청학동(연면적 3,887㎡에 58실 규모)의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형태이다.

군은 지난 2014년 영등포 제1장학관을 개관한 후 2019년에는 서울 중구에 제2장학관을 추가 개관하며 어려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기초자치단체로는 드물게 2개소에 130실 186명 규모의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월 13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군민들이 인천지역 등에도 건립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해 왔다.

3, 4장학관 개관으로 300호 이상의 호실을 확보하게 되어, 강화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인천지역과 강북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기존 장학관에서 거리가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3, 4장학관 개관으로 근거리 통학이 가능해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 수 있게 됐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에 3, 4장학관을 개관하게 되면, 전국 최초로 4개의 장학관을 운영하게 된다”며, “강화군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사업으로, 적기에 장학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1**

- 최백하기자



동대문장학관 전경



인천장학관 전경



## 계획대비 공정률 115%, 2024년 5월 개통 목표 강화군,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 개설공사 '속도'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 위치도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2025년 3월 준공예정이었으나, 10개월가량 공기를 단축해 2024년 5월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한창 속도를 내고 있다.

본 사업은 교동대교(봉소리)에서 월선포(상용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로 총 연장 2.17km, 총사업비 93억 원이 투입된다. 2021년 4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본격 시작했다.

‘교동 동서 평화도로’의 교두보인 해안 도로가 개통되면 ‘월선포~교동대교’ 구간을 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해안가 수변생태와 연계해 특색 있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월선포 ~ 상용간 해안도로가 조기 개통되면 대룡시장 및 화개정원과 연계한 강화 북부 접경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도 사통팔달의 도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교동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전체 공정률이 계획 대비 115%이상 초과 달성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음식점 환경개선 만족’영업자 93%, 이용객 90% 강화군,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큰 호응



외식업소 시설개선 완료 음식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외식업소 영업자 81명과 이용객 1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업자의 93%가 만족한다(매우만족 73%, 만족 20%), 3%가 보통이다, 4%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며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큰 만족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객의 90%가 만족한다(매우 만족 44%, 만족 46%), 10%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도 해당 사업을 주위에 추천할 것인지를 영업자에게 묻는 항목에서도 9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 그렇다

23%)’고 응답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화군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지역 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강화섬쌀 공급, 시설개선 등 보조사업을 지원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외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사업에 대한 큰 성과를 확인했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및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속에서 본 지원사업이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용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도시 외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의 불교미술, 청련사 감로왕탱’ 전시



청련사 원통암 감로왕탱 불화



‘강화의 불교미술, 청련사 감로왕탱’ 기획전시

강화역사박물관이 ‘강화의 불교미술, 청련사 감로왕탱’ 기획전시들을 연말까지 개최한다.

감로왕탱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불화로 무주고혼(無主孤魂)의 천도를 위해 천상의 신들이 마시는 감로를 맛 보여 극락 왕생하게 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불화다.

청련사는 각각 1907년과 1916년에 제작된 두 점의 감로왕탱을 소장하고 있다. 이 그림들은 당시의 불교신앙을 시사해 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불화와 근대 불화를 연결해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기획 전시에서 평소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삼장탱 초배지(첫 번째 배접지)와 1917년 제작된 큰 법당 감로왕탱의 초본 등이 전시

된다.

청련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고려 시대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삼장탱(1881년 제작), 현왕탱(1881년 제작) 등 다수의 불교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영상으로 제작 상영되어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인천시 유형문화재 원통암 감로왕탱의 실제 유물이 9월부터 한 달간 전시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는 이른 시기부터 불교문화가 발전해 왔고, 다양한 불교 문화재가 소재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람객에게 강화의 수준 높은 불교 미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전등사·강화군청 공동주최 ‘정족산성진지 복원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강화 삼랑성 중 성벽 전경(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주지 여암스님)가 강화군청(군수 유천호)과 공동으로 오는 8월 18일 오후 1시 전등사 전등각에서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과 백산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선 후기 정족산 사고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정족산성진지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주제발표와 토론

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고려 가궤지로 알려졌던 정족산성진지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건물지를 고증하고 복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화 정족산성진지(鼎足山城鎮址)는 2014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6호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정족산사고(鼎足山史庫)의 보호를 목적으로 조선중기 이후 설치된 국방 시설이다.

2008~2009년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정족산성진」 지도에 표현돼 있는 내사(內舍), 진사(鎭舍), 포랑고(砲糧庫) 등 대부분의 건물지와 국가 창고인 정족창 유구도 확인됐다. 발굴 유구도 양호한 상태이고 정족산성진지의 공간 구조 및 각 건물지 평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관련 연구 및 복원·정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우용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 원장은 “전국적으로 정족산성진지의 유적지만큼 상태가 양호한 국가 군사창고 유적도 드물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족산성진지가 전등사의 중요한 유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용 원장은 “향후 고증에 의거해 복원함으로써 정족산성진지가 역사의 숨결을 향유할 수 있는 전 국민의 역사교육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최백하 기자



##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여름철 어린이물놀이 시설 안전캠페인’ 실시



여름철 어린이물놀이 시설 안전캠페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4일 신정체육시설 어린이물놀이시설에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어린이물놀이 시설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화군 체육회와 강화자원봉사센터, 강화자율방재단, 선원면장 및 이장 등 강화군 관내 단체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안전예방과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30여명의 참여자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폭염 행동요령에 대해 홍보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는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에 잠시라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물과 폭염대비 홍보용 부채 등 안전캠페인 홍보물품과 함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배부했다.



여름철 어린이물놀이 시설 안전캠페인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역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안내하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 강화군, ‘건강드림카 사업’ 확대 시행 연간 이용횟수 가구당 12회, 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도 가능



건강드림카 사업차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8월부터 건강드림카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드림카 사업은 고령과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역 내 병원, 관공서 등 방문 시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간 건강드림카 사업은 가구당 연간 최대 6회까지 이용 가능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고령 인구나 교통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가구당 이용횟수를 연간 12회까지 늘리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업 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1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꿀벌 소독약품 시범 배부

## 낭충봉아부패병 선제 대응...꿀벌 보호 최선 / 21일까지 배부, 설명서 정독 후 살포 당부



토종벌 사육농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21일까지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한 ‘꿀벌 소독약품 시범 배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 배부하는 약품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미국부저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소독약으로, 지역 내 모든 꿀벌 농가에 벌통 1봉군을 평균적으로 10번가량 소독할 수 있는 양을 배부할 예정이다.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의 유충에 발생해 폐사에 이르게 하며, 현재 치료제 및 예방약이 없어 소독을 통한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지난해에도 토종벌 사육농가 2곳에서 이 병이 발생해 모든 봉군을 소각했다. 군은 보관 중인 벌통과 사육장 주변을 소독해 낭충봉아부패병의 전염원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배부하는 약품은 벌에 직접적으로 살포할 경우 벌이 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설명서를 정독하고 벌이 없는 곳에 살포하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역 내 꿀벌 농가들의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품 배부는 시범 배부로 진행되며, 양봉 농가들의 반응과 약품의 실효성을 검토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약품을 배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

# 강화군, 다중이용시설 51곳 레지오넬라균 검사



레지오넬라균 검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7일까지 여름철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 51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저수조 등 급수시설이 레지오넬라균으로 오염되는 경우 집단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군은 대형건물, 목욕탕,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분수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검체 채취 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 환경 점검과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레지오넬라균 불검출 상태여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청소와 소독을 통한 환경 관리를 해야 한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사람 간 전파는 없으나,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면역저하자 등에서 많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은 가벼운 독감형과 폐렴형으로 구분하며 기침, 발열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레지오넬라증 확인 진단을 받아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강화군, 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점검 실시 오는 31일까지.. 벼 자동화 육묘 · 발아장 지원사업 22개소 대상



육묘발아장 사후 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31일까지 보조금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강화군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벼 자동화 육묘 · 발

아장 설치 지원사업’ 22개소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당 시설에 대해 농산물 생산 목적 외의 사용 여부 ▲각종 재해로부터 파손 여부 ▲중요재산의 임의 행위 등 법령 위반 행위 ▲올해 진행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이다.

농업인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각종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의 시설물과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조금 지원 재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며, 각종 홍보 ·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1]

## 강화군, 올 7월말기준 야생 들개 62마리 포획, 포획사업 총력



들개 포획 키트 설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들개 신고·포획 사업관련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며 야생 들개 포획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전 3년간 강화군 들개 포획 건수를 보면 2020년 20마리, 2021년 57마리, 2022년 85마리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

62마리를 포획한 상황이다.

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들개 포획사업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하지 않고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초 1,9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며, 총 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 1,100만 원에서 5,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마다 관광객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 동물의 신고가 끊이지 않고 그 공격성으로 인해 가축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며, 공원, 둘레길 등에도 나타나 주민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들개를 붙잡기 위해 포획틀을 설치하면 개가 불쌍하며, 포획틀 입구를 고의로 닫거나 포획된 개를 풀어주는 등 포획을 방해하는 주민들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들개 발견 시 즉시 군이나 읍 · 면사무소로 신고해 주시고, 혹시 들개로 인해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천시민안전보험(응급실 내원치료비 지원)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 말복맞이 강화섬약썩한우 반값 행사 성료



강화섬약썩한우 반값 할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9일 강화축산물판매장에서 진행된 ‘강화섬약썩한우 반값 할인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말복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작 전부터 줄을 선 소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행사 품목은 한우 1+등급 이상으로 100g당(1+기준) 안심은 6,700원, 등심은 5,000원, 양지는 2,800원에 판매하였고, 1인당 4팩(구이용 2팩, 불고기·국거리 2팩)까지 구입할 수 있었다.

강화섬약썩한우 반값 할인행사는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강화군의 대표 한우 브랜드인 강화섬약썩한우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11월까지 강화섬약썩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강화섬약썩한우가 강화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선제 대응 인천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마트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따른 시민 안전 먹거리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횃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단속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말 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신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 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 및 구조된 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8. 7.~ 9. 30.

**집중단속** 10. 1.~10. 31.

**▶ 동물등록대상**

주택 1주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1주에서 외피 장소에서 많이 목격되는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견의 고양이도 등록(10월 1일부터 시행)  
\* 동물이상동물은 안락사(인간, 영장류, 코끼리)는 제외, 구아리아에 동물등록차입입질 및 입양신고 구아리아 생식도 제외(동물등록의무는 시행된 후 면제)되고 한다.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의 의무사항입니다  
머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방법**

**【내방형 방식】 (반려견)**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 내방접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외방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처인 동물병원 동물 통해  
외방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동물등록대행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10월 01일** - 동물등록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사망·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 동계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방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 변경(이름)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하여야 함



## 기고

이경수

## 조선의 인물, 강화의 인물, 권필



가을날 백련사

##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도 사랑하고 슬도 사랑한다네.

...

내 붓은 내 손을 떠나지 않고  
내 잔은 내 입을 떠나지 않네.

‘나’는 석주(石洲) 권필(權韞, 1569~1612)입니다. 조선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던 인물입니다. 서울 서대문 밖 반송방에서 태어나 마포 현석촌에 살았습니다. 그의 호, 석주는 현석촌에서 딴 것입니다.

19살에 과거(소과)를 봐서 급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합격이 취소됐어요. 그가 써낸 글 가운데 딱 한 글자가 문제가 돼서 최종 탈락한 것입니다.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글자, 이를테면 임금의 이름자 같은 걸 실수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취소가 속상해서 과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조정 세력 간의 다툼, 분탕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재야에 남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의 성정도 관직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권필이 말했습니다. “나는 성품이 소탄(疏誕)해서 세상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못 예법을 중시하는 인사들이 배척하는 바가 되었다.” ‘소탄’이란 ‘태생적으로 얽매임이 없고 자유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안되면, 그 누구에게도 속이지 않았어요. 속이는 척도 안 했습니다.

## 백련사에서

권필이 강화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임진왜란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강화로 피란 와서 머물렀습니다. 이후 오가기를 반복하다가 1597년(선조 30)에 강화에 정착했습니다.

권필이 강화에 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곳곳에서 배움을 청하는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선생님이 되었죠.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또 강화 주민들 삶에 보탬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시나브로 강화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네요. 고천준이라는 이가 대표인데 학문이 높고 시로도 명성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선조는 예조판서 이정구를 원접사로 임명합니다. 원접사는 사신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책임자입니다. 1601년(선조 34) 11월, 조정. 이정구는 선조에게 권필을 영접단원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선조가 허락해서 권필이 이정구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선조, 허락은 했는데, 정작 권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관리가 아니라 강화도 시골 마을에 묻혀 사는 선비였으니까요. 사신 맞이는 글 잘하는 이들이 해야 합니다. 조정에 문장가가 쟁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정구는 벼슬도 없는 권필을 뽑아 올린 것일까요?

호기심이 발동한 선조, 권필의 작품을 구해오라고 지시합니다. 아랫사람들이 권필의 시 몇 편을 베껴서 올렸습니다. 오마이갓! 선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필 작품의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쁜 마음에 특별히 권필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말직이었으나 그렇게 관직 생활을 시작해서 커가면 되는 겁니다. 선조 마음에 꼭 들었으니, 앞날도 순조로울 겁니다. 권필은 가난합니다. “남은 송곳 꽃을 땅도 없다 하지만 / 나는야 애당초 송곳도 없네” 이런 시를 남긴 권필입니다. 이제 살림이 좀 피게 됐어요.

그런데 웬걸. 권필이 벼슬을 거절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그 벼슬을 준다는 데 길가 돌멩이 걷어차듯 차버렸습니다.

1603년(선조 36), 여전히 권필을 기억하는 선조가 다시 벼슬을 내렸습니다. 동몽교관! 아이들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번엔 권필이 사양하지 않았어요. 가장인데 집안 살림도 생각해야지. 부인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사표를 냅니다. 관복 갖춰 입고 예조에 나아가 윗분들에게 인사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미련 없이 벼슬을 버렸습니다.

절은 고요해 증은 막 선정에 들고  
산을 맑으니 달빛이 더욱 많아라  
성근 반딧불이 어지러운 풀에 붙었고  
어둑한 새는 깊은 가지에 모였어라  
씩씩하던 뜻은 외로운 검만 남았고





권필 부부 묘(경기 고양)

곤궁한 삶의 시름에 단가를 부르노라  
서울에는 형제들이 있건만  
소식이 어떠한지 모르겠구나

‘절’은 고려산 백련사입니다. 권필이 자주 가던 곳이에요. 스님도 잠든 깊은 밤 백련사, 잠 못 들고 시름에 빠진 권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 너는 아느냐, 백성의 고통을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이이첨이 떴습니다. 완전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수많은 이가 이이첨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이이첨의 줄을 잡으면 출세가 당연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이이첨이 권필을 가까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번 숙여주면 ‘인생 역전’이 될 터. 그러나 권필은 딱 잘랐습니다. 얼굴조차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뻔했을 때 권필은 담장을 넘어가버렸습니다.

권필, 세상에 대한 관심 끊고 자기 공부만 하며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고달픈 백성의 처지를 염려했습니다. 민본(民本)을 외치며 백성 등쳐먹는 지배층의 위선과 부패를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그의 총칼은 붓이었어요. 그러다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 그래도 권필은 시로 싸웠습니다.

고관대작 집들이 궁궐을 둘러싸고 있네  
노래 부르고 춤추며 잔치만 일삼고  
값비싼 갖옷에 살찐 말 다투어 사들이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영욕을 따질 뿐  
웁으냐 그르냐는 문제 삼지도 않으니  
어찌 그들이 알겠는가 쑥대지붕 아래에서  
추운 밤 쇠덕석 덮고 우는 백성들을

### 궁류시를 남기고

1610년(광해군 2), 42세 권필은 강화도 생활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강화와 인연을 맺은 지 거의 20년 만입니다. 그런데 강화 떠난 지 2년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아요. 권필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따라가 봅시다.

임숙영이라는 사내가 있었어요. 광해군 재위 3년 때인 1611년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옛날 권필처럼 합격이 취소될 상황입니다. ‘딱한 글자’가 아니라 그가 써낸 글 전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임숙영이 낸 답안지 내용이 대략 이러합니다.

“지금 조정은 비굴한 아부쟁이들이 등용되고 벼슬도 오르고 있다. 왕비와 후궁의 친척들이 특히 그렇다. 임금이 관직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궁 밖에서는 중전의 친척인 누가 임명될 것이다, 후궁 일족인 누



석주 권필 유희비(송해면 하도리)

가 임명될 것이다, 소문이 돈다. 그런데 소문에 오르내리던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관직에 임명된다. 해당 기관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대간들 역시 논하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이다!”

아닌 게 아니라 외척의 횡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비의 친오빠인 유희분이 특히 그랬어요. 분노한 광해군은 임숙영 급제를 취소하라고 명하고, 신하들은 안 된다고 버티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권필이 시를 지었습니다. 궁류시(宮柳詩)라고 합니다. 궁궐 궁(宮), 버들 류(柳). 직역하면 궁궐 버들입니다만, 내포된 의미는 궁궐의 유씨(柳氏)들입니다.

궁궐 버들 푸르고 어지러이 꽃 날리니  
성 가득 벼슬아친 봄별에 아양 떠네.  
조정에선 입 모아 태평세월 하례하나  
뉘 시켜 포의 입에서 바른말 하게 했나.

‘봄별’은 광해군, ‘포의’(벼슬 없는 선비)는 임숙영을 빗댄 것입니다. 궁류시로 권필은 완전히 찍힌 몸이 되었습니다. 시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후 엉뚱한 역모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 집에서 권필의 궁류시가 나왔습니다. 졸지에 권필이 역모 세력과 한패로 엮였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광해군이 직접 국문했습니다. 매는 가혹했고 몸은 속절없이 망가졌습니다. 사형을 겨우 면하고, 함경도 경원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배길, 권필 보려고 벼들이 동대문 밖에 모였습니다.

타는 목 축이려 벼들이 내민 송별주를 마시다 쓰러진 권필,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1612년(광해군 4), 그때 권필 나이 44세였습니다. 그가 죽던 날, 강화 송해 그의 집 마당, 만발한 도화 꽃잎, 붉은 비 내리듯 와스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권필의 시 한 편 더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食吾田(식오전) 내 밭에서 밥 먹고  
飲吾泉(음오천) 내 샘에서 물 마시네.  
守吾天(수오천) 내 분수를 지키다가  
終吾年(종오년) 내 삶을 마치리. ❶



## 칼럼

## 완장과 갑질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동네 건달인 ‘종술’은 저수지 관리인이라는 완장을 찬 뒤 안하무인으로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 타지를 떠돌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종술에게 완장은 금배지 이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낚시질하는 사람들에게 기합을 주고, 몰래 물고기를 잡던 친구와 그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읍내에 갈 때조차 완장을 두르고 활보한다.

급기야 저수지에 물고기를 잡으려온 최 사장(저수지 주인) 친척들에게 행패를 부려 감시원에서 해고당한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완장을 찬 채 저수지를 감시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러던 중 가뭄이 심해지자 해소책으로 저수지 물을 빼려고 온 수리조합 직원에게까지 폭행을 가한다. 이 일로 경찰에 쫓기는 처지가 되자 술집 작부와 함께 마을을 떠난다. 그가 떠난 다음날 물이 빠진 저수지 수면 위에 완장이 뚱뚱 떠다닌다.”

윤홍길의 소설 ‘완장’의 일부분이다. 완장의 속성과 본질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개발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완장은 우리에게 특이한 존재로 다가왔다. 그것은 차기만 하면 멸절하던 사람도 돌변하는 야릇한 것이어서 인간관계를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날에는 일제의 앞잡이가 된 한국인 순사, 한국전쟁 당시 잡자기 좌익이 된 사람, 학교 정문에서 복장검사를 하던 규율부 학생 등이 ‘완장’의 동의어처럼 여겨졌다. 좀 더 시기를 좁히면 귀족노조 간부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완장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 않는 대신 ‘갑질’이 대체재로 등장했다. 갑질은 원래 사전에 없던 신조어(新造語)다.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갑(甲)’과 비하하는 의미가 강한 우리말인 ‘질(행위)’이 합쳐져 강자가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한다. 완장과 갑질, 두 단어의 조합이 왜 자연스럽게 보이는가는 “완장을 찬 사람이 갑질을 한다”는 말을 떠올리면 된다.

갑질이라는 말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을(乙)’의 위치에 서본 경험이 많은 청년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10여년 전 인터넷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반짝했다가 곧 사라지는 유행어와는 달리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대화에서는 물론 신문과 방송에도 자주 등장한다.

갑질이라는 용어 사용빈도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절정을 이루더니 최근에는 아예 공식용어로 진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갑질금지법’으로 불리며, 정부 국민신문고에는 ‘갑질피해 신고센터’가 만들어져 있다.

새로 나온 사전에도 ‘갑질’이 등재돼 있다. 사전에 비속어(갑질)가

버젓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일반화됐다는 얘기가. ‘갑질공화국’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행태가 만연된 우리 사회를 가리킨다. 갑질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자,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야 합니다.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특히 반장 등 리더를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지난해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나는 담임교사를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교장과 교감, 교육청을 상대로 “담임교사의 직위해제가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10월 아들의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다음달 해당 담임교사를 직위해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에게 교사에 대한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A씨에게 구두경고만 내렸다가 문제가 되자 최근 직위해제했다.

갑질의 국제화까지 진행 중이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4일 EBS(교육방송) 강좌에서 “해외에서도 갑질이라는 말이 널리 쓰여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수도 있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돈 많고 권력이 있어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에는 관심이 없고 갑질만 일삼는다”고 질타했다.

갑질의 속성은 특이하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질 한번 했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음에도 갑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건 학습효과도 없는 모양이다. 갑질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대중의 분노가 들끓고 별집을 쭉신 듯한 소동이 벌어지지만 갑질은 계속된다. 오히려 황당하고 해괴한 신종 갑질까지 등장한다. 갑질의 진화인지 엽기화인지 헷갈린다.

21세기 미스터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질 속성을 인간의 DNA와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주 짝짝한 느낌을 주는 이 말이 언제쯤 사라질지 궁금하다.

대법원은 갑질·폭행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의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마늘 한 움큼을 강제로 먹이고, 직원들의 머리 염색 색깔을 자신이 정한 뒤 염색하도록 했다. 또 사내 메신저에 휴대전화



를 엿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사찰했다.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마사회장은 측근을 채용하려다 인사 담당 직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정부지침이든 나발이든 이 XX야. 내가 장관 만나서 그 자식 모가지 잘라버리라고 할 테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지 씨X. 니가 방해할 일은 아니잖아. 풀리는 대로 해”라고 했다. 귀가 의심스럽지만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다. 갑질인지 시정잡배인지 분간이 안된다.

경기도 북부청사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레이스 달린 옷, 원피스 등을 입지 말라면서 각서를 요구했다. 한번 찍히면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혀 못 견디고 그만둔 교사가 2년 동안 9명에 달한다. 한 교사는 “원장님만 보면 가슴이 뛰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진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는 매년 학내 갑질 실태를 자체 조사해 발표하도록 정부로부터 권고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대학 내 갑질 행위 근절과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공립대들은 2018년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나 제도 운용상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학별로 갑질 실태를 정확히 조사·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강령에 갑질 금지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갑질 조사·징계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갑질 신고 처리 업무를 맡겼다. 갑질 신고 전담번호와 대학 홈페이지 내 갑질 신고 안내가 없는 대학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매년 갑질 실태를 자체 조사·발표하고 제도 운용상 문제를 보완하도록 국·공립대에 권고했다.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갑질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 조사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갑질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갑질 행위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 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며 “대학의 갑질 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대학 내 갑질 신고가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대학별 갑질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공립대학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9년 46건에




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직원 행동강령이 공개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다.

또한 대학별 행동강령 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 제도적 미비와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대학 내 갑질 사건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매년 대학별로 갑질 실태를 자체 조사하게 하고,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해 위반 시 신고절차와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갑질신고센터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갑질 신고에 따른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학원 연구인력의 권익 강화 관련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97명 중 146명(74.1%)이 대학원에 갑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77명(39%)이 교수의 우월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 (주)유원환경,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 기탁



(주)유원환경 이웃사랑 성금 기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일 (주)유원환경에서 이웃 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유원환경은 인천 동구에 소재한 건설사업장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로 지난해에는 라면 1,000박스과 강화섬쌀 500포를 기탁하며, 꾸준한 고향사랑과 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

강화군 길상면이 고향인 황원길 대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유원환경이 전해주는 꾸준한 사랑 덕분에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희망을 얻고 있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전해주시는 유원환경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 '부경건설' 매년 꾸준한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성금 300만 원 기탁



(주)부경건설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0일 부경건설에서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경건설은 지역내 건설 업체로 매년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풍수해 재난 발생 및 예방활동에도 적극 봉사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기탁하게 되었다.”라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사용 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매년 꾸준히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 삼일자동차 김영식 대표, 고향사랑기부제로 받은 사랑의 쌀 기탁



삼일자동차 쌀 기탁

강화군 양사면은 지난 9일 삼일자동차서비스(주) 김영식 대표가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쌀' 10kg 55포(1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강화군 제1호 고액 기부자로 기부답례품으로 받은 강화섬쌀을 이번에 양사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김영식 대표는 “강화는 인연이 깊어 제2의 고향이며, 앞으로 양사면으로 이사를 올 계획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지영 양사면장은 “우리 양사면에 기탁해주신 김영식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 무릎관절염, 올바르게 관리하기

무릎관절염은 무릎 관절 안의 관절 연골이 점차 사라지고,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주변 인대 등에 손상과 염증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관절 주변에 통증과 변형이 일어나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해 신체활동 감소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상실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일으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관절 연골은 닳아서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릎관절염을 예방하고, 발생하면 초기부터 치료받고 적절히 관리하여 질환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무릎관절염 관리방법을 알아보자.

## ■ 무릎관절염의 진단

켈그린-로렌스 분류법(KL grade)에 따른 무릎관절염 단계

정상	초기	중기
[0기] 관절 간격이 정상이다. * 앞에서 본 무릎	[1기] 관절 간격이 좁아짐이 의심되는 단계	[2기]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지고, 골극이 보이는 단계
말기		
[3기] 관절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진 단계	[4기] 관절 간격이 좁아져 관절이 거의 맞닿고, 골 변형이 심한 단계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1기(초기)는 무릎 관절 통증과 관절 주변이 붓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체중관리 및 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무릎관절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2기(중기)는 무릎 관절 통증으로 불편함을 더 자주 느끼게 되며, 1기에 비해 관절 간격이 좁은 상태를 말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을 받으면서 증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3기(말기)부터는 만성적으로 무릎관절염이 진행된 상황으로 약물 치료나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개선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단계다.

무릎관절염 환자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하체 운동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수술적 치료는 관절내시경 수술(관절경 수술), 교정 절골술, 인공관절치환술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환자의 나이, 활동 수준, 관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 무릎관절염에 적절한 운동 방법

무릎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꾸준히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 강화 및 유연성·균형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기본 치료와 관리방법이다.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유지하는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Q-setting exercise), 스쿼트 운동(squat exercise),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 운동(wall squat exercise), 평지 걷기, 수영 및 아쿠아로빅 등의 수중 운동, 실내 자전거, 게이트볼, 포크댄스, 필라테스, 요가 등이 있다.

특히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은 경직된 근육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운동 중에 느껴지는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운동 후에 통

증이나 열감, 부종 등이 느껴진다면 냉찜질을 해서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과 생활 습관

권장되는 운동

-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Q-setting exercise)\*
-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올바른 자세의 스쿼트 운동(squat exercise)
-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 운동(wall squat exercise)
- 평지 걷기, 수영 및 아쿠아로빅 등의 수중 운동
- 실내 자전거, 게이트볼, 포크댄스, 필라테스, 요가, 태극권 등

\*대퇴사두근 세팅 운동(Q-setting exercise): 앉은 자세에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고 유지하는 운동

권장되는 생활 습관

-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계단 오르기
- 반려견과 산책하기
- 대걸레로 집 청소하기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 ■ 무릎관절염 Q/A

Q) 관절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진짜로 효과가 있나요?

A)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이 아닌,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 기능을 활성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글루코사민, N-아세틸 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메틸설포닐메테인(MSM) 등은 무릎관절염에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장기간 복용 시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Q) 무릎관절염이 심하면 무조건 인공관절치환술을 해야 하나요?

A) 3~4기에 해당하는 노년층의 환자들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관절염이 X-ray 상에서 많이 진행되었다고 반드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편함과 일상 생활에서의 기능 저하 정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Q) 무릎관절염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A) 무릎관절염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보다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고, 일상 생활 활동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1]



## 2023년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영화제

일시 : 2023. 9. 7. (목), 13:30 ~ 17:30  
장소 : 강화작은영화관



**대상**  
12세 이상 강화군민 누구나  
(선착순 100명)

**내용**  
- 1부: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 2부: 특별강연(영화관람, 힐링토크)

**신청기간**  
2023. 8. 7. (월) ~ 2023. 8. 25. (금)

**신청방법**  
이메일 및 구글 폼 접수  
- 이메일 접수 : ghmhc@hanmail.net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 팝업창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구글폼 QR코드 

문의 :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032)932-4093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 7. 24. ~ 8. 20.까지  
정부24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23. 8. 21. ~ '23. 10. 10.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조사 대상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각세대, ③ 장기결석 및 복귀가 미확정세대,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 비대면 사실조사 어떻게 참여하나요?

**온라인 '정부24앱' 으로 가능합니다**

1. '정부24'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Google Play  
iOS - App store
2. '정부24'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클릭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4. 사실조사 참여

5. 참여자 정보 확인
6. 세대 정보 확인
7.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 확인
8. 사실조사 완료
9.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책전문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